



01 소장내시경 장비 도입

소화기병센터 검사실은 경기서북부지역 최초로 소장내시경을 도입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했다.

소장내시경은 주로 원인 미상의 위장관 출혈, 빈혈, 복통, 소장암, 크론병(Crohn's disease) 등에 유용하며, 캡슐내시경과 달리 직접 병변을 관찰하여 조직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검사방법이다. 소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리고 소장벽에 고정해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술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을 직접 치료하는 장점이 있다.

소장내시경은 검사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예전에는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비용이었지만, 전년도 8월부터 급여로 전환되어 소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



02 초등학교 입학 자녀 축하선물 전달

동국대학교병원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직원 자녀를 축하하는 입학선물 전달식을 5일 4층 명성세미나실(중강당)에서 진행했다.

입학선물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학용품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37명이 전달받았다. 입학선물 전달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과 동료애를 발휘하고 동국가족으로 병원에 대한 애사심을 키우는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입학선물 전달식은 교직원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김민호 일산행정처장은 앞으로 좀 더 알찬 선물로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면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주었다.



03 2015년도 상반기 신규직원교육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12일과 13일 1박 2일 동안 상반기 신규직원 82명을 대상으로 병원 대강당과 수덕사에서 신규직원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병원현황과 직원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수덕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로 신행교육이 진행되었다. 신규직원교육은 신규직원이 병원생활과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운영지원팀은 상, 하반기 두 차례 시행하는 신규직원교육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04 2015년도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육연구부는 2015년도 신규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을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4층 명성세미나실(중강당)에서 진행했다.

올해 신규로 입사한 인턴 33명은 학대환자보호, 항암화학요법, EMR사용법, CS교육 등 인턴수련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병원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으며, 레지던트 및 인턴 대표가 참석하여 수료증과 임용장을 받았다.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병원의 초석이 되어야 할 인턴들이 순조로운 병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5 새해맞이 두 번째 깜짝 이벤트!

영양팀은 급식업체 'CJ프레시웨이(주)'가 후원하는 신년 이벤트 2탄으로 "영화 씨시봉 관람권 추첨"을 12일에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단 한번의 복불복 뽑기로, 씨시봉 영화 관람권 2장씩 5명, 무료 영화 관람이 가능한 VINGO 포인트를 50명에게 제공했다.

영양팀은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 진행한 두 번째 깜짝 이벤트에서 행운을 잡은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월 친절 간호사



111병동 이상경 간호사

병동을 옮길 때 인수인계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친절하고 꼼꼼하게 말씀해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친절히 응대해 줍니다.



121병동 김아름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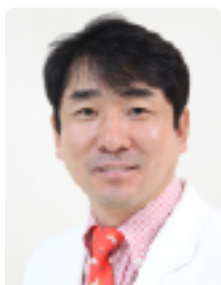
마주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는 김아름 간호사 모습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주인공 22호

침구과 교수

이승덕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0년 전 한잔 하자고 한 약속이 일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덕 교수님과 약속이었습니다.
모처럼 거한 술자리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과의 이야기들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건 껌데기가 아니고 내용물이며,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비교하라는 교수님 말씀...
항상 성장하는 하루 하루가 되어 알맹이가 꽉 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CS경영팀 이정우 파트장

